



“유정 선배” 이번엔 영화다

영화 ‘치즈 인 더 트랩’ 박해진 “같은 역할...마지막 유정, 속제 같은 작품” 드라마서 보여주지 못한 모습 보이려 노력

같은 배역을 TV 드라마에 이어 영화에서 맡는다는 것은 배우에게 ‘양날의 검’이다. 관객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드라마와 똑같으면 똑같다고, 다르면 다르다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해진(35)에게도 영화 ‘치즈 인 더 트랩’ 속 유정 역할은 큰 도전이었다. 유명 웹툰이 원작인 데다, 불과 2년 전 같은 역할을 맡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었다.

12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에서 만난 박해진은 “더 늦기 전에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영화를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마지막 유정이자, 속제 같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실제 만난 박해진은 유정과 닮은듯하면서도 달랐다. 극 중 유정은 외모, 성격, 집안 등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엄친아’다. 박해진 역시 외양만 보면 ‘만찐남’(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 그 자체다.

하지만 말수가 별로 없는 유정과 달리 박해진은 모든 질문에 빠른 말투로 청산수수의 대답을 쏟아냈고, 시종일관 여유가 넘쳤다.

박해진은 “저도 유정처럼 사람들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 속에 속한다”면서도 “실제 성격은 밝고, 남들에게 살가운 편이지만, 그런 성격을 일부러 다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정은 복잡다단한 캐릭터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사실은 상처받기 싫어 일정한 거리를 둔다. 선

의를 베풀면서도, 상황이 제 뜻대로 돌아가지도 않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뒤에서 사람을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다 자신의 본모습을 알아챈 후배 홍설(오연서)에게는 속내를 털어놓는다.

“유정이 사이코패스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남들과 다를 뿐, 더 순진하고 순수한 인물이지요. 오히려 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설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 드러내죠.”

박해진은 드라마에서는 김고은, 영화에서는 오연서와 각각 연기호흡을 맞췄다. 두 배우 모두 흥렬 역이다. “둘 다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러면서도 다른 매력이 있어요. 드라마 속 홍설은 조금 더 솔직하고, 영화 속 홍설은 똑부러진 면이 있죠.”

박해진은 여배우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 오연서도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박해진은 ‘겉 토크’가 가능한 선배”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제가 사실 피부관리나 케어, 화장품 등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것을 못 잡는 성격입니다. 요즘에는 가구나 스탠드,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박해진은 올해 데뷔 12년 차다. 2006년 KBS2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연하남’ 역할로 데뷔한 뒤 드라마 ‘하늘만큼 땅만큼’, ‘에덴의 동쪽’, ‘열혈 장사꾼’ 등에 출연했다.

또 중국 드라마 ‘첸더터의 결혼이야기’ 또 다른 찬란한 인생 ‘연애상대론’ 등에 출연하며 10여년새 한류스타로 우뚝 섰다. 다음 달에는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微博)에 한류스타로는 처음으로 영상채널 ‘박해진 V+’도 개설한다.

“한류스타라는 말은 아직도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신인 때와 달랐던 게 있다면 조금 더 연기에 능숙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촬영하고 나면 시청자 게시판을 보는 것도, 방송 다음 날 기사를 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연기가 내게 맞는 옷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더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작품에 임하는 자세는 예전이 더 적극적이고 활발했던 것 같아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3년째 중국을 찾지 못했다는 박해진은 “요즘은 (한한령이) 풀릴 기미가 보이는 것 같다”면서 “내년 방영 목표로 중국 드라마 출연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해진은 최근에는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히트시킨 장태우 PD가 연출하는 사전 제작 드라마 ‘사자’를 촬영 중이다. 추리형 판타지 로맨스극으로, 박해진은 1인 4역에 도전한다.

“배우에게는 연기를 잘한다는 말이 가장 큰 칭찬인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던 배우 박해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오히려 보이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대를 명 받았습니다”

빅뱅 태양·대성 잇따라 입소

그들 빅뱅의 태양(본명 동영배·30·사진)이 팬들의 배웅을 받으며 12일 입대했다. 태양은 이날 오후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청성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태양은 입소 시간을 15분 남긴 오후 1시 45분께 차량에서 내린 뒤 소속사 관계자와 함께 부대로 이동했다. 그는 별다른 입영 전 행사 없이 배웅 나온 팬 100여명에게 손을 흔들고 악수를 했다. 미리 준비된 포토라인에서 경례를 한 뒤 군절을 울리며 팬들에게 입영 전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앞서 부인 민효린도 배웅을 나올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태양이 위병소를 통과할 때 민효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팬들은 ‘기다릴게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부대가 설치한 안전선 앞까지 나와 소리치며 태양의 군복무를 응원했다.

1948년 창설된 육군 6사단 청성부대는 현재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를 지키는 최전방 부대로 한국전쟁 당시 최초로 압록강까지 진격한 뒤 철모로 물러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수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13일에는 대성이 강원도 화천군 육군 27사단 이기자부대로 입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빅뱅은 승리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4명이 군 복무를 하게 됐다. 대성의 입대일에는 빅뱅의 다섯 멤버가 참여한 신곡 ‘꽃길’이 음원사이트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황금빛 내인생’ 45.1% 시청률로 종영

‘가족끼리 왜이래’ 이후 3년만에 40% 달성

어디로 튀지 모르는 전개에 말도 많았지만 결말은 따뜻한 주말 가족극의 공식을 따랐다. 12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8시 5분 방송한 KBS 2 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은 45.1%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성적으로 종영했다.

‘황금빛 내 인생’을 달성한 드라마는 미니시리즈는 2012년 2월 MBC TV ‘해를 품은 달’ 이후 5년간 없었으며, 연속극은 2015년 2월 KBS 2TV ‘가족끼리 왜이래’ 이후 처음이다. ‘가족끼리 왜이래’의 자체 최고 시청률은 43.3%(2015년 2월8일)였다. 마지막회에서는 서태수(천호진 분)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깨닫고 각자 자기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서지안(신혜선)과 최도경(박시후)도 돌고 돌아 다시 만났다.

‘황금빛 내 인생’은 초반 재벌가 출생의 비밀, 자식 바뀌지 등 흔한 주말극 소재로도 시청자의 예상을 엮는 과감한 전개로 호평받았다. 이후 서태수가 ‘상상암’과 진짜 암을 오가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가족극이 주는 ‘따뜻함과 교훈’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며 무난한 끝을 맺었다.

한편, 2회 연속 방송한 MBC TV 일요극 ‘밥상 차리는 남자’는 11.4%, 19.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2018 평창 패럴림픽 <결명, 대한민국: 핀란드>	30 930 MBC 뉴스 4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남자 바이애슬론 12.5Km>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평창 2018 패럴림픽 <바이애슬론>
11	00 다큐 공감(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55 UHD 한식의 마음		5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대한민국: 미국>	
12	00 KBS 뉴스 12 3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00 1%의 우정(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특 보험설계 (재)
1	20 천상의 컬렉션(재)	25 생생정보 스페셜		55 닥터 365
2	20 팔도밥상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5 꾸러기 식스곡식 35 프리파라 3	00 뉴스브리핑
3	00 2018 평창 패럴림픽 라이브 <알파인스키 남녀 복합>	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05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실 45 위대한 유혹자(재)	
4		00 1대 100(재) 55 재보자들(재)	55 뉴스콘서트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착한 마녀전(재)
7	00 KBS 뉴스 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왠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지라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블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공사창립특집 2부작 가야			
10	35 숨터 40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00 위대한 유혹자	00 키스 먼저 할까요?
11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허락받지 못한 재워워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00 독립영화관 <화이트 갓>	35 2018 평창 패럴림픽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하이라이트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화산섬의 비밀	13:40 성난 물고기(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19:30 EBS뉴스
(멕시코 맛기행	09:40 장수의 비밀(재)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50 국한적임 스페셜
-2부 옥수수의 나라)	10:30 한국기행(재)	15:15 파프리카	20:40 세계테마기행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히말리아의 동물들 내팔에 반하다 2부 종교를 아십니까?)
06:20 세계테마기행(재)	(달걀을 볶아찌고 빵이버섯 샐러드)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냥장고 나라, 코코몽	(을 얼마 2부 한상의 짝궁)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00 EBS 정오 뉴스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7:45 출동! 슈퍼웬스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우리만 이리라
08:00 덩동명 유치원1~2	(꿈나를 학교를 아십니까?)	16:45 덩동명 유치원1~2(재)	23:5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8:30 플라워링 하트	-꿈나를 뮤지컬 제작 꿈의 학교)	17:30 마사와 곰	24:45 지식채널e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00 다크 오늘	17:45 띠띠뽀 띠띠뽀	24:50 한국영화특선
09:00 몬카트	(제갈량의 초인적 대담)	18:00 생방송 특!톡! 보너스나1~4	<권순보사자 납치사건>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00 몬카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3일(음 1월 26일 甲辰)	
子	48년생 마주 보고 대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60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수이니 성사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72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대범하게 넘어 가지. 84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3, 46	午	42년생 관공을 좌우할만한 격려가 요동친다. 54년생 발전적으로 이동하는 대국이다. 66년생 여백의 아름다움이 훨씬 빛나리라. 78년생 좌우를 잘 살피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90년생 사리에 맞게 처신하자. 행운의 숫자 : 81, 90
丑	49년생 내내심으로 일관된 지속성이 공적인 특리로 이끌 것이다. 61년생 총련하는 기세로 크게 변장하는 길일이다. 73년생 균형 감각과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85년생 숨이 가쁜 하루지만 보람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99	未	43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55년생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67년생 어떻게 행하느냐하는 방법론이 중요하다. 79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고 본다. 91년생 공을 들여라. 행운의 숫자 : 74, 85
寅	50년생 무엇이든지 우연한 요철이 일지하는 원리에 해당되므로 정리정돈하기에 좋은 날이다. 62년생 불수목 가관이다. 74년생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6년생 기존 방식대로 이행하라. 행운의 숫자 : 13, 72	申	44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양호한 결과를 얻게 된다. 56년생 투명 한 태도와 일관된 자세만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68년생 과장은 거짓의 겉가지를 얹는다. 80년생 드디어 여명이 밀려가는 어둠을 보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2, 54
卯	51년생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불과할 뿐이니 과대진 말라. 63년생 참여란 논리에 휩쓸릴 수다. 75년생 떠나려는 이를 붙잡지 말 것이며, 찾아오는 이를 막지 말라. 87년생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살피라. 행운의 숫자 : 25, 59	酉	45년생 상대를 존중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무궁한 발전에 이르게 된다. 57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69년생 목전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81년생 뜻밖의 소식을 듣거나 의외의 인물을 만날 수이다. 행운의 숫자 : 62, 18
辰	52년생 복신이 도와주니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길일이다. 64년생 평소 애는 공이 비상시에는 약이 될 것이다. 76년생 승명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인다. 88년생 자료보다는 체험에 의존함이 훨씬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82	戌	46년생 남을 의식하며 내밀하게 행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세이니라. 58년생 낡은 것을 붙잡고 있으니 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 번 낫다. 70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82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1, 22
巳	53년생 현대대로 추진한다면 대체로 순조롭겠다. 65년생 기본적인 것에 충실 하는 것이 실속이다. 77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89년생 우발적이라면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5, 70	亥	47년생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59년생 전례대로만 행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71년생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거나 뜻깊은 영예로움이 있을 수다. 83년생 매우 귀중하다고 볼 수 있는 니여고 없이 접근함이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45